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현실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곳

양지혜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비서관

기본소득 정치가 태동한 순간

“2016년은 기본소득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¹⁾

과연 그랬다. 2016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대회가 열리는 해였다. 포스터에는 기본소득을 처음 공부할 때, 책으로만 접했던 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친구가 일상을 보내는 대학의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니 신기했다. 어쩌면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일지 몰랐다.

기본소득을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궁금한 게 많았다. 2016년은 인공지능 ‘알파고’가 출현했던 해였다. 6월 5일에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가 치러졌고, 스위스 국민의 23%가 기본소득에 동의했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중심사회의 한계가 폭로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고 있었다. 생동감 넘치는 전세계의 풍경이 대한민국에 모여든다니 그 자체로 기대가 됐다.

1) 2016년 7월 6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판 파레이스’의 발언을 인용.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의 경제모델,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확대,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 ▲노동 사회의 전환,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시민권 강화 등에 있어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돌아보는 장이었다. 고백하자면, 대회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오랫동안 통역기를 쫓느라 귀가 저렸고, 때로는 말의 속도가 빨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논의는 흥미로웠다. 세계 각지에서 현재진행형인 기본소득 실험과 시도, 담론과 정치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 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더 많은 질문이 남는 포럼이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 기본소득의 개념과 지향점에 대해 논의했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본소득의 특징에 정기성, 현금성이 추가되었다. 충분성을 비롯한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지급액수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는 ‘기본소득은 물질적 빈곤을 해소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현존하는 복지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담겼다.

기본소득 정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왔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기본소득 정치’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2016년 대회에서는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국회 연설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했다”며 “다가올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춘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8월 말, 국회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7년이 지난 지금, 기본소득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연구포럼이 발족하기도 했다.

제16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이후, 정치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시작된 ‘성남 청년배당’을 계기로, 청년·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신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지역의 특색이 고려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20대 대선에는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가 무려 2명이나 등장했다. 각 후보의 정책은 충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소득을 사회적 전환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만큼은 같았다.

기본소득이 ‘미래에서 날아와 우리 곁에 도래’²⁾했음에도(혹은 도래했기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본소득이 만들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살펴보고 논의하기 어려웠다. 지난 7년 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이어졌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어려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²⁾의 주제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인 이유이며, 개최지가 ‘대한민국’인 이유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제도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올 여름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서울에서 치러진 뒤, 7년 간 대한민국이 겪은 변화와 시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협업할 방안을 논의하는 계절이 될 것이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에서 기본소득 정치인으로

2016년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세계적 규모의 학술 대회였다. 제16차 대회에 참여할 당시, 나는 학자도, 연구자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학생도 아니었다. ‘내가 갈만한 자리인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구축해나가는 이들은 내 예상보다 다양했다.

세션의 논의를 이끄는 사람은 학자나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당사자나 활동가이기도 했다. 수입이 불안정한 청소년, 청년, 활동가에게는 참가비를 할인해주기도 했다. 서로 다른 지평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말할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꺼이 마이크를 건네받는 자리였다. (긴 행사가 지루하기는 했지만) 학술대회라 ‘딱딱할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였던 나도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 청년운동,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세션 발제자로 함께했다. 청소년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마음을 나눴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는 무엇인지 토론했다. 밤새 커피를 마시며 열기설기 채웠던 발제문은 서툴렀고, 긴장한 나는 발표 시간을 한참 넘겼다. 그렇지만 청중들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가진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었다.

2)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주제문 중 일부 인용

당시 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기본소득은 청소년을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점, 청소년에게 경제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가정과 사회에 종속되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 집 밖이나 학교 바깥을 선택한 청소년은 갈 곳이 없다. 내게는 ‘부모의 폭력이 싫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등 각자의 이유로 울타리를 나온 청소년 동료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롯한 삶의 안전망이었다. 나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청소년에게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을 동등하고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했다.

세션의 다른 발표자들도 여성에게, 노동자에게, 청년에게,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각각 발표했다. 맥락은 달랐지만, 기본소득이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되짚어볼 수 있는 세션이었다. 반대로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권이 강화되어야지만 기본소득 역시 제 의미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두발자유 등 청소년의 자유권에 대한 운동은 유서 깊었지만, 기본소득을 비롯한 청소년의 사회권을 주장하는 운동은 생소할 때였다. 세션에서 현장 참가자들과 함께한 이야기는 나에게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넣었다.

나와 동료들은 그렇게 기본소득당의 창당에 함께했고, 기본소득당 내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친권자, 교사 등 어른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왜 중요한지를 돌아봤다. 청소년이 획일적인 진로만을 강요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했다. 대덕구 용돈수당, 판동초 기본소득 등 몇 년 새 우리 사회에서 시도된 기본소득 사례들을 직접 검토해보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사례를 돌아보며, 기본소득이 제도화될 때 청소년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방안 역시 검토했다.

고민과 상상력을 나눴던 시간들이 모여서, 청소년 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사례가 되고 한 정당의 정책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쌓인 것이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학술적 탐구를 넘어, 실천을 고민하고 운동을 확장시키는 장이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7년만에 23개국서 49개국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막연한 고민을 털어놓던 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기본소득 정치인으로서 발표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모인 고민이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실천과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열린다. 기본소득을 막연히 알고만 있는 청년 동료들에게 ‘학술대회’에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책 속에 갇혀 있는 ‘딱딱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의 경험과 실천, 토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싶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서툴지만 새롭고, 낯설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모여드는 대회가 될 것이다.

제22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주된 세션 주제는 ▲정치 속의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책·실험·입법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의 등이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토론과 논의가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기본소득 운동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범람하며,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